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유근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타자의 시선을 통한 경험적  
몸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함유미

# 타자의 시선을 통한 경험적 몸 표현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유 근 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함 유 미

# 인 준 서

함유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 개요

우리의 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경험한다.

개인의 삶에서 크고 작은 경험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에 체화되어 하나의 인격체가 된다.

인간이 노동을 시작했던 원시 공동체 사회는 더불어 살아감에 행복을 느끼는 사회이므로 착취나 억압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공동체는 상실되고 계급이 발생하여 권력이 존재하는 사회가 되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기계의 발달과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된 물질만능주의 시대이고 그로인한 부작용으로 인간 고독, 인간소외, 허무주의의 시대이다.

본인은 이러한 사회풍토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애환에 관심을 가졌으며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가에 관한 의문으로 작업을 시작 하였다.

현대사회에서 나와 타자는 경쟁 하는 구도에 놓이며 비교하는 삶으로 구성되어 진다. 이러한 타자의 시선은 외모지향적인 사회를 만들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보여 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타자와의 경쟁으로 인해 그만큼 현대 사회 흐름에 몸이 체화 되었으며 본래 인간이 지닌 순수성을 잃는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사회 속의 경쟁으로 인해 자신의 삶 속에서 정신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집’이라는 공간과 가족 간의 관계, 사랑을 통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집’은 인간이 처음 사회를 경험하는 작은 사회이다.

서로 다른 타자와 타자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며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고 편안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아픔과 상처가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우울증, 이혼등 사회 문제점의 시작을 개인의 가정 사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논하였으며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을 통하여 본인은 현대 사회를 바라본다.

개인의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의 몸을 세상 속에 체화시킨다고 논했던 메를로퐁티의 이론을 제시하여 유아기, 아동기의 ‘집’에서의 가족 간의 생활 경험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술 작품에서의 경험적인 몸의 표현을 나타내었던 작가들을 연구하여 그들의 삶의 경험과 동시대의 사회적 혼란을 통해 나타내었던 인간의 모습을 연구하고 본인의 작업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II. 타자의 시선과 경험적인 몸 .....	3
1. 몸과 개인의 경험 .....	3
2. 몸-주체 .....	6
3. 타자와 시선 .....	8
III. 미술 작품에서의 경험적인 몸 .....	11
1. 프란시스 베이컨 .....	11
2. 자코 메 티 .....	13
3. 이 응 노 .....	15
IV. 작품 분석 .....	17
V. 결론 .....	34

참 고 도 판

참 고 문 헌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인생사 나그네 길, 157 x 75cm, 장지에 채색, 2013 .....	19
【작품 2】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 80 x 100cm, 장지에 채색, 2013 .....	20
【작품 3】 고향 가는 길, 141 x 64cm, 장지에 채색, 2012 .....	22
【작품 4】 밤 그림자, 144 x 111cm, 장지에 채색, 2012 .....	23
【작품 5】 찰각. 57 x 69. 천에 바느질, 채색. 2012 .....	25
【작품 6】 Am 2:45분. 97 x 143. 장지에 채색. 2012 .....	26
【작품 7】 즐거운 식사, 144 x 111cm, 장지에 채색, 2012 .....	28
【작품 8】 혼자 하는 생일파티, 45 x 53cm, 장지에 채색, 2012 .....	29
【작품 9】 식탁의 반란, 145 x 112cm, 장지에 채색, 2013 .....	31
【작품 10】 공상, 91 x 116cm, 장지에 채색, 2013 .....	32

## 도판 목차

【도판 1】 프란시스 베이컨, <앉아 있는 인물 1974: 잠자고 있는 인물>, 1974

【도판 2】 자코메티, <City Square>, 1948

【도판 3】 자코메티, <Walking Man>, 1948

【도판 4】 자코메티, <The Glade>, 1950

【도판 5】 이응노, <자화상>, 1968

【도판 6】 이응노, <대전풍경> , 1968

# I . 서 론

오늘날 배금주의의 성행으로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찾거나 여유를 가질 수 없으며 물질적인 풍요가 자신의 행복을 이끌어 줄 것이라 믿는다.

표면적으로 현대인들은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듯 보이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우울증과 자살률의 증가는 지금의 현대사회를 반영하며 정신적인 공허함으로 인해 현대인들은 삶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

본인은 이러한 허무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애환에 관심을 가졌으며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에 관한 의문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인간의 몸은 사회 속에 체화되어 경험이 축적된다.

몸속에는 수많은 의식이 있고 우리의 의식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가족구성원들과의 교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유아, 아동기 때의 가정에서의 경험은 한 인간의 인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은 백지상태와 같아서 모든 사물에도 인간처럼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 본인은 이런 순수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진다. 하지만 아이러니 한 것은 이처럼 순수했던 아이들 또한 성장하면서 현대사회의 흐름에 몸이 체화되어 자연스럽게 자신의 순수성을 망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순환의 반복으로 본인은 이 사회가 결코 물질을 우선시 되는 사회로만 존재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니체는 인간은 ‘신’ 과 같은 이상적 존재를 만들어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임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더 없이 나약해 진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는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넘어 개인의 내적인 힘을 키워 허무주의를 극복 할 수 있는 인간 유형인 ‘위버멘쉬’를 말한다.

증가하는 이혼율, 알콜 중독의 가정, 우울증 등 ‘집’이라는 공간은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이라고 명명되어지는 동시에 사회현상의 시발점이 되는 양면성을 띄는 공간이다.

본문 첫째 장에서 본인은 삶의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가족 간의 사랑을 논하며 유아, 아동기시절 가족이 개인의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논하였다. 둘째 장에서는 가족 간의 생활 경험이 몸에 체화되어 학습되어지고 한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메를로퐁티의 몸-주체 철학이론을 설명하여 논하였다.

우리는 가족과의 관계와 더불어 타자들과 함께 사회를 살아간다.

보여 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본인의 작업에서 ‘가식웃음’으로 표현하며 타자와의 시선이 본인의 작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본문 세 번째 장에서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작가 연구(프란시스 베이컨, 자코메티,이응노)를 통해 미술작품에 있어서의 경험적인 몸의 표현과 작가들이 살았던 동시대의 사회적 현상을 통해 나타내었던 인간의 모습을 연구하고 본인의 작업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을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 II. 타자의 시선과 경험적인 몸

### 1. 몸과 개인의 경험

이 세계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우리의 몸과 의식은 세계 속의 시스템 안에서 학습하고 경험하며 사회를 알아간다.

표면적으로 개인들은 주어진 시간과 공간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개인 모두 자라온 환경이 다르며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정체성을 찾으며 삶을 영위한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추구한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거나 부를 축적하고 자식 교육에 열심인 것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나 자신의 자식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행복이야말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행복을 감각적 즐거움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감각적 쾌감을 제공하는 물질적 수단들을 구입할 수 있는 화폐의 축적을 행복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로 간주한다. 따라서 현대인들의 삶에서는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감각적 즐거움을 향유하는 것이 주가 되고 있다.

행복을 감각적 즐거움과 동일시하면서 현대인들이 보다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열심히 노동한 결과 현대는 전대미문의 물질적인 풍요를 실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물질주의적이고 소비지향적인 삶의 방식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현대인들은 높은 물질적 생활수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을 근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적 공허감으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과 마약중독, 섹스 중독, 인터넷 중독 등에 빠지고 우울증에 사로잡히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삶을 마감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공허감마저도 아직 물질적으로 덜 풍요로운 데서 비롯된다고 착각하면서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sup>1)</sup> 하지만 현대인들은 물질의 풍요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 삶에 대한 공허함과 회의감을 느낀다. 이러한 사회를 허무주의 사회라고 한다.

본인은 우리 사회가 영원히 허무주의적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니체 (*Nietzsche, Friedrich Wilhelm* 1844 ~ 1900)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를 통하여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에 관해 논한다.

가치전도를 통해 새로운 가치의 정립을 시도하는 니체에게 있어서 한 행위의 가치를 재는 중요한 척도는 다름 아닌 자기 스스로의 극복의 정도이다. 니체는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 속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인간적인 자기실현을 이루고 세계를 긍정하는 인간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극복을 이루어 내는 존재가 바로 그가 주장하는 새로운 인간상 위버멘쉬이다.<sup>2)</sup>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신에게 의지함으로 인해 자신을 더욱 나약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며 신이 아닌 위버멘쉬의 인간상을 강조하며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다.

본인은 허무주의적인 삶의 극복을 ‘가족 간의 사랑’에서 찾고자 한다.

서로 다른 타인과 타인이 만나 새로운 가정을 만들며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함으로써 세상은 존재한다.

어린 아이들은 백지 상태와 같아서 있는 그대로를 믿으며 모든 사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 한 것은 이처럼 순진했던 아이들 또한 성인이 되면서 본래의 순수성을 잃고, 피폐해진 사

1) 박찬국, 「인간과 행복에 대한 철학적 성찰 - 실존철학의 제조명을 통하여-」, 집문당, 2010, p11

2) 이길호, 「니체의 인간 개념에 관한 연구: 도덕관념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도덕 윤리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1

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순수함이 사라지는 것은 그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약육강식의 사회적 풍토 때문인지, 아니면 성장함에 따라 본래 지녔던 순수함을 망각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 결과 지금의 현대사회는 인간고독, 인간소외현상과 함께 물질만능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회가 되었다.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기에,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에 우리사회는 너무 많은 발전을 했다. 자본주의라는 이름하에 행해지는 관료제의 문제점들, 권력을 중시하는 비인간적 이데올로기의 사회에서 인간들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잇는다.

인간소외, 인간의 고독 현상은 가정에서도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현대 사회의 축소판이 되어버렸다.

알코올 중독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한 두려움, 분노, 죄의식, 수치심 등을 경험하며 대부분의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그들이 경험하는 감정들의 강도, 깊이, 빈도는 더 크다. Brown(1988)은 이러한 현상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과 유사한 결과로 보고, 고립감, 분노, 우울, 타인에 의한 사건으로 인한 외상 등이 가족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등 유년 시절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지내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ACOAs<sup>3)</sup>의 부적응 문제로 조절의 문제, 불신의 문제, 자기요구의 무시, 감정의 부정, 책임감이나 확실히 매듭짓는 능력 부재의 어려움, 자아 정체성의 문제, 대인관계의 친밀감에 대한 어려움, 비정상적인 죄책감과 낮은 자존감등이 있다. (Woitiz,1983)<sup>4)</sup>

이혼, 알코올 중독의 가정, 가정폭력, 비행 청소년등 사회문제의 많은 부분은 개인적인 공간 ‘집’에서부터 시작되며 그 곳에서부터 형성된 개인의 트라우마는 성인이 된 후에도 몸에 무의식과 의식 속에 같이 존재 하게 되며 그 결과 사회문제의 현상으로 대두된다. 이로써 ‘집’이라는 공간은 안식처라고 명명되

---

3) 알코올 중독자 가정의 아이들

4) 김용진, 「알코올 중독가정 성인자녀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사회 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2009.

어지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개인들의 아픔과 슬픔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만약 부모나 주위사람으로부터 관심과 따뜻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에 휩싸여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깊은 부정적인 관점을 가짐과 동시에 자신을 보살피 주지 않는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된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나도 좋지 못하지만 주위사람들도 좋지 못하다는 ‘자기부정-타인부정’의 관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삶에 대한 뚜렷한 매력이 없어진다. 이 상태에서는 자신 또는 주위사람들에게 걸 만한 특별한 희망이 없고 거의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생활의 어느 부분에도 별 흥미가 없다. 그냥 그러저럭 시간만 때우는 삶이 된다. 그래서 삶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죽지 못해 그냥 살아갈 뿐이다. 이러한 상태는 기쁨이 없다. 단지 위축과 비관과 실의만 있을 뿐이다.<sup>5)</sup>

## 2. 몸-주체

몸은 경험을 토대로 타자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자아를 표출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몸은 인간 경험의 거대한 영역이다.

때로는 신비의 대상이며, 형이상학적 탐구의 대상이고, 때로는 개인의 심리적 분석과 내향적 관찰의 터전이 되며, 때로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문제들이 서로 충돌하고 경쟁하는 이데올로기와 미학의 경기장이 된다.

몸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늘 새로운 설명과 해석을 요구하는 담론의 복합체이다.<sup>6)</sup>

---

5) 송관재, 김범준, 「인간심리의 이해」, 2013, p.90

6) 홍덕선 박규현 지음, 「몸과 문화」,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p.401

199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은 이전의 정신과 이성 중심 사유에서 몸과 욕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음을 던진다. 몸에 대한 담론이 등장한 것이다.

남성은 정신/여성은 몸이라는 사유(페미니즘)에 의해 몸을 재해석하고,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 모든 동식물에 대한 생태주의는 자연스럽게 몸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때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 Ponty, 1908~1961)의 몸철학은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한다.

지각이 중요한 것은 세계 내에서 대상을 찾아내고 타인과 자신을 인식하는 인간에 대한 존재방식이 지각 내에 압축되어 들어있기 때문이다.

철학적 반성은 과학이 해명하지 못하는 지각적 의식의 원초적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재발견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심리학의 경험주의와 주지주의에 대한 모든 개념을 비판하여 본래 세계(현상적 장場)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메를로퐁티의 생각이다. 우리 몸이 거주하고 있는 이 세계는 몸이 직접 경험하는 공간이다. 즉, 몸은 세계를 향해 자신의 과제를 몸으로 해결해 나가는 실존적 주체이다. 7)

메를로퐁티는 몸을 핵심 주제로 등장시킨다. 이러한 몸은 과학의 대상으로서의 객관적인 몸도 아니고, 이원론의 한 항으로서 간주되는 몸도 물론 아니다. 현상적으로 몸은 세계와 분리되지 않는다. 그것은 세계에 거주하면서 세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몸이다. 그리고 몸이 끊임없이 세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의미가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

메를로퐁티에게 있어서 몸은 무엇보다 세계와 만나는 우선적 경험인 지각을 하는 몸이며 또한 인간존재의 실존적 표현이다. 우리가 세계 내에서 경험을 할 때 그 경험하는 인간은 심적 존재가 아니라 신체적 존재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몸은 인간 그 자체이다. 8)

더불어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몸은 생활 속에서 스스로의 체험을 능동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몸이다. 물리학, 생물학, 해부학의 대상인 기계적이며 객관적

7) 황인술, “메를로 퐁티의 삶”, 독서신문(<http://www.readersnews.com>), 2014, 4월 15일

8) 강미라, 「몸주체 권력」, 이학사, 2011, p.50~52

으로 드러나 있는 몸이 아니라 선-반성적, 선-객관적인 몸으로서 내가 소유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안에서 인간은 끊임 없이 현존을 체험하면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다.<sup>9)</sup> 그러므로 태어나서 가족 구성원들과 ‘집’에서 겪는 삶의 경험은 개인의 인격에 큰 영향을 주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더불어 개인의 역사가 존재하는 공간이 된다.

### 3. 타자와 시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외부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 중 타인의 존재는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인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며 결코 나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자아의 외부조건이다. 또한 인간은 성장하면서 가족 뿐 아니라 친구, 동료 인류와의 교류를 가지게 되고 자신의 삶 대부분이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짐을 알게 된다. 사회집단 안에서 자의 또는 타의로 맺은 타인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관여하게 되고 타인의 욕구와 자아의 욕구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더욱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우리의 일상에 늘 함께하는 타인은 실천적 영역 뿐 아니라 도덕적 영역, 사회와 제도의 영역 속에서 전제가 되며 감성적인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먼저 타인은 단지 우리의 감각만 으로서만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주변세계에 늘 존재해 있을 것이라는 내면의 추측으로 지각 된다. <sup>10)</sup>

우리의 의식은 대상 없이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대

---

9) 메를로퐁티 지음, 류의근 옮김,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p492-493참조한 김혜진, 「댄스시어터 몸구현: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학과 연극학전공 예술전문사, 2007 인용

10) 정다운, 「시선으로 통하는 타자와 자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7, p.4

상 앞에서만 스스로 형성되는 그런 존재이다.

처음에는 투명하여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무(無)의 상태이다가 앞에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그 순간에 작동을 시작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의식이다.

그러므로 의식은 항상 ‘그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이다.

이것은 후설Edmund Husserl(1859-1938) 현상학의 기본 원리인 지향성(指向性)의 원리이다. 사르트르(Jean Paul Sartre 1905~1980)의 실존주의 철학도 여기에 기초해 있다. 향일성(向日性) 식물이 언제나 해가 있는 쪽으로 줄기의 방향을 돌리듯, 의식도 언제나 대상을 향해 나아간다. 이것이 의식의 지향성이다.<sup>11)</sup>

의식은 자기 앞에 놓인 대상을 향해 초월적 운동을 하는데, 이때 대상은 ‘의식과는 성질이 다른 것’, 즉 ‘의식이 아닌 어떤 것’이다. 나의 의식이 향해 가고 있는 창밖의 저 나무는 당연히 ‘나의 의식과는 성질이 다른 것’이고, ‘나의 의식이 아닌 것’이다. 우리의 의식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모두가 대상이다.

하나의 주체 앞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다. 책상도 나무도 돌멩이도 모두가 대상이다. 그런데 프랑스어에서 혹은 영어에서 대상(objet, object)은 객체 또는 물체라는 말과 동의어이다. 따라서 ‘나’라는 주체의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대상은 객체이며 동시에 모두가 사물이다. 책상이나 나무 같은 사물이 의식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상이 곧 사물이라는 공식에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또 다른 주체인 인간이 의식이 대상이 되었을 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하나의 의식 앞에 놓인 주체는, 그도 엄연히 자신의 속에 무를 포함하고 있는 대자적 존재이건만, 오로지 다른 의식이 대상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무나 돌멩이 같은 사물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남이 나를 볼 때 그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우선 물건으로 본다는 이야기이다.

누군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물체가 된 느낌을 갖는다. 그의 시선은 절대 주체이고 나는 한갓 객체에 불과하다.

내가 내 주위의 사물들을 바라보듯이 나도 남의 시선에 의해 그렇게 사물처럼

---

11) 박정자, 「시선은 권력이다」, 기과량, 2008, p32

바라보여진다는 것을 나는 안다.

타인에게 있어서 나는 책상이나 꽃병이나 찻잔과 다른없는 물질적 존재일 뿐이다.<sup>12)</sup>

사르트르의 문학 작품에서 강박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의 하나가 수치심이다. 그의 주인공들은 남의 시선을 참을 수 없어 한다. 누군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들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고 한없이 수치스럽게 만든다.

포스트구조주의 정신분석학자 라캉Jacques Lacan(190-1981)은 수치에 론(論)을 붙인 신조어로 '사르트르의 존재론은 곧 수치론(羞恥論)'이라고까지 말한 적이 있다. 수치심은 근원적으로 타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수치를 느끼는 것은 타자의 시선 속에서이다.

혼자 마음속으로 수치를 느꼈다 해도 그것은 타인의 시선을 가상적으로 상정하고서이다.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1943)에 나오는, 열쇠구멍을 통해 남의 방을 들여다보는 남자의 이야기는 수치와 존재론에 대한 탁월한 예시이다.

나는 열쇠구멍을 통해 어느 방을 몰래 들여다보고 있다.

나는 단지 그 방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만을 지각할 뿐, 나 자신을 의식하지 못한다. 나는 주체(sujet, subject)이고, 방안의 장면은 대상(objet, object)이다. 나는 방안을 바라보는 주체로서만 존재할 뿐, 나 자신을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 나는 세계의 중심이고, 물론 수치심도 없다.

그런데 갑자기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가까이 온다.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나는 내 행동이 상스럽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워진다. 이때까지 자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타인의 시선이 닿자마자 나는 열쇠구멍에 눈을 대고 구부정하게 숙이고 있는 추악한 내 모습을 인식한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의식하지 않던 나는 타인의 존재가 나타나자마자 나를 대상(오브제)으로 의식하고, 나의 행동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파악한다.

---

12) 위의 책 p 35

타자는 이처럼 나와 나 자신을 연결하는 필요불가결의 매개자이다.  
나는 남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을 때만 나 자신을 부끄러워한다.  
남의 시선이 없다면 인간에게 수치심은 없다. 단순히 수치심만이 아니라 존재의 기초 자체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고까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sup>13)</sup>

인간은 타자를 통하여 자신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인식하지만 요즘 현대사회의 루키즘<sup>14)</sup> 현상으로 인해 문제시되는 성형중독, 과도한 다이어트는 지금의 사회를 절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보여 지기를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에 점차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상실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 Ⅲ. 미술 작품에서의 경험적인 몸

#### 1. 프란시스 베이컨 (1909 ~ 1992)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은 인간 내면의 불안과 고통을 그로테스크하면서도 강렬하게 그린 천재 화가이다.

그는 명화나 사진 속 인물에서 영감을 얻은 후 이를 결렬한 필치로 표현해 냈다. 그의 작품은 일그러진 형상의 인물을 어둡고 폐쇄된 공간에 배치해 마치 절규하듯 보이게 한 것이 특징이다.

전쟁이 발발하고 기존의 믿음이 허물어지면서 자신의 존재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베이컨은 시대의 잔혹상을 일깨우듯 기괴한 인간, 일그러진 인간, 군상들을 표현하고 싶어 했으며 이미지에 아주 격렬한 변형을 가해왔다. 이 당시 베

13) 박정자, 「시선은 권력이다」 2008, 기파랑, p30

14) 루키즘의 다른뜻인 외모지상주의의 뜻은 외모를 인생을 살아가거나 성공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는 사고방식이다. 위키 백과사전.

이권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초현실주의의 우연성과 표현주의의 색채를 결합시킨 강렬한 화면구성이었고 이론적으로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사상과 니체의 허무주의였다.<sup>15)</sup>

베이컨의 회화 작품의 내용은 대단히 폭력적이거나, 허무주의 적이다.

베이컨의 경우에 문제로 삼았던 것은 그러한 상황 연출이 대상의 단순한 형태 변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내부까지 해체하는 인간의 걸치레에 의해 숨겨진 내면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일까지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일 것이다.

베이컨의 회화에서 드러나는 속성은, 인체의 외면에 있는 형태를 해체하고, 인체가 지니고 있는 기능과 장면에서 드러나는 불합리성의 교차 때문에, 우리는 그 내면의 본질마저 해체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는 기존의 인물 표현 방식인 아름답고 훌륭한 인간의 모습을 포착하는 범주에 대하여 너무 표피적인 걸모습에만 매달리는 표현방식이라고 여겼으며, 이를 극복하여 인간의 내면 속에 간직되어 있는 본능적이며, 잔인하고 추한 속성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리얼리티로서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것은 그가 인체를 마치 고깃덩어리처럼 짓이겨지고 너털너털한 모습으로 뒤바뀌서 표현하는 방식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여겨진다.

작품<앉아 있는 인물, 1974: 잠자고 있는 인물, 1974> 【도판1】은 베이컨의 회화가 구성 하고 있는 것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형태적인 상응 대신에 인간인지 동물인지 구분할 수 없고 명확히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인간은 동물이 된다. 16)특히 그가 다루는 인물의 특성이 기득권층의 부유하고 학식 있으며, 고령층의 인물을 주로 다루고 있는 데서도 그러한 속성은 드러나고 있다. 인간의 숨겨져 있는 비인격적이고 추한 내면으로 감상자들을 유도하고, 거기서 감상자들에게 스스로의 본질과 다시 대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감상자들은 추하고 일그러진 모습에서 자기 자신의 또 다른 감추어진 모습으로서 의도하지 않았던

15) 한영숙, 「프란시스 베이컨의 회화와 그의 예술세계:질 들뢰즈에 근거한 감각적 예술론의 모색」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7

16) 요세 마리아편, 조광석, 이돈수 옮김 「20세기 미술의 발견-베이컨」 예경, 1980, p20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거울에 비춰지는 허상이 실재로는 자신의 진정한 참 모습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괴기적인 모습을 발견하고는 놀라게 된다. 그는 이러한 내면을 드러내어 그리는 일의 수단으로서 인체를 변형하고 있다.<sup>17)</sup>

## 2. 자코메티 ( 1901 ~ 1966 )

자코메티의 조각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인체 조각이었다.

그는 조각에서의 실험과 수용을 통한 탐구 과정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끊임이 지 않는 갈망으로 자신의 갈등과 번뇌, 불안, 공포로 점철된 시각을 통해서 진실을 찾을 수 있었다.<sup>18)</sup> 자코메티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대한 지각 또는 의식 체험을 재현해 내려는 작가로서 초현실주의와의 교류를 통해서 공간적 해석의 기반을 제공했으며, 공간 지각적 표현은 시대적 배경과 함께 나타나는 사회적 환원(還元)에서 직·간접적으로 언급되었다. 그의 대상에 대한 지각적 표현은 결국 ‘객관적 실재성’에 의한 ‘주관적 의식성’으로 대상을 단순히 ‘미적지각’으로 보지 않고 대상의 본질성과 더불어 조형요소에 대한 표현으로 이루어졌다.<sup>19)</sup> 그의 ‘지각’은 시각 형태를 이해하기 위한 그의 의도적인 보는 행동과 사고과정으로 대상에 대한 ‘지각’은 수동적 수용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신과정의 산물이며, 이는 현상학에 의한 시지각적 해석 방식과 실존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일관되었다.<sup>20)</sup>

---

17) 오수영, 「프란시스 베이컨 회화의 내면적 공간과 인간형상에 관한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9, p.32~33,

18) 유정아.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조각에 관한 연구” <한국미술교육학회>, 「미술교육논총 제3권」, 1994, p141

19) 자코메티의 인체표현은 미적경험에서 나오는 대상이 가지는 고유한 특질인 아름다움 보다는 대상의 본질성과 대상의 움직임에 대한 공간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20) 김광희. “알베르토 자코메티 조각과 회화의 시각적 특성”. 한국기초 조형학회, <한국 기초 조형학 연

사르트르는 4살 연상인 자코메티를 1941년에 만난다.

사르트르의 철학과 자코메티의 예술이 만나는 지점은 역시 인간 현실에 대한 공통된 이해에서 찾을 수 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있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비록 신체를 가지고서 물질세계 속에 물리적으로 존재하고는 있지만, 결코 사물들처럼 구성요소들로 분해할 수 있는 기계적인 복합체가 아니다. 21)

이러한 실존적 해석에 대한 사르트르의 사상은 인간의 통속적인 존재이기 보다 무(無)에 비길 수 있는 존재로 그 무를 뚫고 창조를 통하여 현재의 자기를 이룩해 나가는 자유를 추구하도록 운명 지워진 현존재로 규명하고 있다.

그는 결코 어떤 사상적 체계로 그의 작품을 표현하려 하지는 않았으나 사회 현실에 대한 인간 소외를 묘사하려는 공식적 결과로 실존주의적 실체의 예술을 받아들였다. 그의 조각들은 주로 긴 인물상으로 공간과 인간의 절대적인 관계를 다루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졌으며, 인체들은 그 자체로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언제나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현실에 대한 탐구로 일관되었다.

그의 작품은 주로 긴 인물상으로 공간 속의 인간의 제(諸)관계를 다루고자 하는 노력으로 귀결되었으며, 조각에 나타나는 인간상의 공허한 이미지는 인간의 고독, 소외, 연민, 허무, 고뇌 등이 작품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그의 인물상들은 공간에서 육체적 물질성이 박탈되어 고독과 불안에 떨고 있는 인간 존재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2차 대전 후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자코메티로 하여금 인간 존재에 대한 동양 주의적 관조(觀照)의 직관적인 인체 탐구로 나타나게 된다. 그의 1948년 【도판2】 <The City Square>, 【도판3】 <Walking Man>과 1950년 【도판4】 <The Glade>에서 공간에 홀로 서 있는 듯한 인물상들은 고독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물상들의 존재적 의미는 대상 자체의 고독이 아니라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사건과 상황들에 대한 고독을 실존적으로 드러

---

구>, 11권5회, 2010, p37

21) 지영래, 「사르트르의 상상력 이론과 미술비평-자코메티의 경우」,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 21집, 2007.p13~15

내고 있다.<sup>22)</sup>

### 3. 이응노 ( 1904 ~ 1989 )

고암 이응노는 식민통치의 괴로움과 민족분단의 쓰라림을 맞보았으며, 군사정권에 항쟁하면서 피를 흘린 동포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다.

우리 한국의 역사가 고암을 만들었고, 고암의 그림을 창출한 것이라 하겠다.

고암 이응노야 말로 곡절이 많은 인생, 걱정이 많은 인생을 산 예술가였다. 서양화와 김환기(1913~1974)가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국제무대에 한국과 한국 미술을 알렸다면 동양화가 이응노 (1904~1989)는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한국과 한국 미술을 유럽에 알린 대예술가이다.<sup>23)</sup>

이응노는 1967년 북에 두고 온 아들을 보기 위해 북한을 다녀온 것이 빌미가 되어 동백림 사건(東伯林, 동베를린사건)이라는 문제에 연루되어 2년반 동안 서대문·대전·안양 교도소에서 옥고를 치르게 된다. 고국에서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 옥중생활을 통해 옥중미술을 제작하게 되었다. 폐쇄된 투옥생활에서도 이응노의 창작 열의는 대단하였다. 그는 감옥 생활의 억울함보다 그림을 뜻대로 그리지 못하는 부자유를 격분하였다. 미술 도구는 없었지만 극한 상황에서도 무엇인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프로 근성’으로 간장과 화장지에 그림을 그렸고 또 매일같이 밥알을 조금씩 모아서 신문지와 반죽하여 오브제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이런 옥중체험은 그로 하여금 또 다른 눈을 뜨게 했다. 이렇듯 말년에 겪은 고초는 작가를 다시 젊어지게 하고 또 한번의 변모의 과정을 겪게 하였다. 기호화(記號化)되고 도식화(圖式化)된 문자추상 작품들을 옥중에서 인쇄물 위에 펜으로 그린 드로잉에서 보여 지고, 출옥 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

22) 김광희. “알베르토 자코메티 조각과 회화의 시각적 특성”. 한국기초 조형학회, <한국 기초 조형학 연구>, 11권5회, 2010, p30

23) 「고미술」 40호 1995년 12월.

그는 몇몇 <자화상> 【도판5】을 통해 그의 옥중생활을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부제로 ‘안양 교도소에 가장 춥고 괴롭던 날’ 붙은 작품은 자연스러운 목의 번짐을 통해 12월 매서운 추위에 웅크리고 있는 듯 한 자화상을 수묵을 사용하여 선 이라기보다 점에 의한 구성요소로 먹의 번짐과 스밈을 이용하여 나타내는 추상작품이다. 비록 혹독한 추위와 정치적 시련에 희생양이 되었지만 그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고 단단하게 뭉쳐 깊이 있는 존재감이 느껴진다.

<대전풍경> 【도판6】은 대전 형무소를 이송된 뒤 창살 밖으로 보이는, 때로는 잠시 거닐며 담장 넘어 아련히 보이는 대전 풍경을 모티브로 그린 작품으로 자유로움을 그리워하는 늙은 화가의 고향에 대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대전 형무소에서는 그림을 그릴 재료가 주어져 자유로이 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양형무소 때의 밥풀이나 간장을 이용한 작품들보다 처절함은 없지만 막힌 공간속에서의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 내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었다.<sup>24)</sup> 이렇듯 이응노 선생은 자신의 현실에 마주하여 그 계기를 기회 삼아 작품으로 연결시킴으로 삶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다.

---

24) 고명옥, 「고암 이응노의 작품연구: 드로잉의 양식변화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0, p40~43

## IV. 작품 분석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사회, 환경, 교육으로 인해 독특한 개별성을 띄게 된다. 인생은 개인만의 고유적인 것 이며,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인간 고독, 인간소외의 증가로 인해 현대인들은 삶의 허무를 느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욕심은 증가하였고 기계의 발달과 문명의 발전은 더욱 더 물질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마치 물질적인 풍요가 자신의 행복을 지켜 줄 것 이라고 믿는 물질만능주의 사회가 되어버렸다.

본인의 작업에 주로 나타나는 ‘웃음’은 사람들과 타인과의 관계, 시선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감추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한 것이며 인물의 대부분을 나체로 표현함으로써 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억압된 자아를 버리고 자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내면의 성찰에 관심에 집중하려는 본인의 의도이다.

우리는 삶을 마감하는 순간 까지 자신의 삶을 다람쥐 쳇 바퀴 돌리듯 타인과 경쟁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한 채 바쁘게 살아간다.

본인은 이러한 사회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낸다.

표면적으로 가정은 편안하고 안정된 곳 이라고 말하지만, 집이라는 공간은 지극히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이기도 하다. 즉 본인은 점점 피폐해진 사회현상을 가족 간의 사랑의 결핍에서 찾고자 한다. 앞의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본인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가족 구성원들과의 교감을 통하여 한 개인의 인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논하였다. 유아, 아동기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로인한 상처는 본인의 의식 또는 무의식 속에 자리 잡히며 되며 성인이 된 후 에도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간직하며 살아간다.

지금의 현대 사회는 이러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소 이다.

본인은 개인의 집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근거하여 사회현상에 접목시켜 사회를 나타내며 허무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가족만이 자신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임을 말 하고자 한다.



【작품1】 인생사 나그네 길, 157 x 75cm, 장지에 채색, 2013



【작품2】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 80 x 100cm, 장지에 채색, 2013

【작품1】 <인생사 나그네 길, 157 x 75cm, 장지에 채색, 2013>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 이 ‘인생사 나그네길’,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은 보이지 않는 권력, 비인간적인 이데올로기의 사회적인 현상은 인간을 더욱 외롭고 고독하게 만든다.

바다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로 본인은 현대사회의 단면을 표현하였다. 마치 금방이라도 잡히고 잡혀먹을 것 같은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의 인간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임을 나타내었으면 배에 타고 있는 가족들은 이러한 사회를 함께 극복해 친구이자 동료임을 나타내었다.

【작품1】에서의 거친 파도는 【작품2】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 80 x 100cm, 장지에 채색, 2013>에서 잔잔하게 표현되었다.

마치 풀밭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듯 한 가족들과 오후의 한가로운 시간을 나타내었다. 인간의 삶의 허무함이 아닌 가족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본인의 마음이다.



【작품3】 고향 가는 길, 141 x 64cm, 장지에 채색, 2012



【작품4】 밤 그림자, 144 x 111cm, 장지에 채색, 2012

【작품3】 고향 가는 길, 141 x 64cm, 장지에 채색, 2012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착 할 곳을 찾지 못하는 유목민들의 삶과 같다. 사회는 항상 빠르게 변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불안을 느끼게 되며 힘든 상황이 자신에게 처했을 때 결국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줄 수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게 된다.

작품에서 이들은 ‘본향’을 그리워하는 현대인을 나타내었다. 여기에서 본향이란 원래 자신이 태어나고 생활하던 ‘집’을 뜻하며 항상 부모의 품을,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작품4】 밤 그림자, 144 x 111cm, 장지에 채색, 2012

이 작업은 본인이 대중매체를 통해 ‘기러기 아빠’의 생활 다큐멘터리를 보며 제작한 것이다. 항상 가족을 그리워하는 남겨진 아버지들은 사진 속의 가족들을 보며 외로움을 달랜다. 공중에 떠 있는 ‘집’은 정착할 곳 없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곳이 없는 아버지들의 외로움을 표현하였다.



【작품5】찰칵. 57 x 69. 천에 바느질, 채색. 2012



【작품6】 Am 2:45분. 97 x 143. 장지에 채색. 2012

【작품5】찰각. 57 x 69. 천에 바느질, 채색. 2012

마치 가족사진을 찍는 듯 한 포즈로 정면을 응시하면서 웃고 있다.

이 웃음은 본인의 작업에 자주 등장하는 가식웃음, 가면이 아니다.

【작품6】Am 2:45분. 97 x 143. 장지에 채색. 2012

새벽의 ‘집’의 풍경이다.

이 풍경은 본인의 집이 될 수 도 있으며, 우리 모두의 집이 될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맞춰 살아가려면 나 또한 사회에 발맞춰 살아가야 한다. 식탁위의 시든 꽃과 각자 자기 방에서 휴식을 하는 모습은 가족 간의 대화의 단절을 뜻한다. 조용한 집을 돌아다니는 것은 인간이 아닌 사물(청소기)과 애완견뿐이다.



【작품7】 즐거운 식사, 144 x 111cm, 장지에 채색, 2012



【작품8】 혼자 하는 생일파티, 45 x 53cm, 장지에 채색, 2012

우리의 의식(생각)은 항상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기에 하나의 의식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주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같은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의식은 자신의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있으며 나 이외의 타인에게 그리 관대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군중속의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작품7】 <‘즐거운 식사, 144 x 111cm, 장지에 채색, 2012>

거대한 숲’은 모든 것들이 얽히고설킨 현대사회의 표현이며, 불이 모두 꺼져서 아무도 살지 않은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될 수 없음을 나타내었다. 가식 웃음과 몸이 없이 얼굴만 떠 있는 사람들을 나타냄으로서 현대 사회의 공허함을 나타내었다.

【작품8】 <혼자 하는 생일파티, 45 x 53cm, 장지에 채색, 2012>

자신이 태어난 가장 중요한 날 인 ‘생일’은 자신에게만 특별한 날이다. 타인에게 있어서는 그냥 지나가는 보통날이며 형식적인 축하와 선물만이 존재한다.



【작품9】 식탁의 반란, 145 x 112cm, 장지에 채색, 2013



【작품10】 공상, 91 x 116cm, 장지에 채색, 2013

【작품9】 <식탁의 반란, 145 x 112cm, 장지에 채색, 2013>

식탁에는 식자재의 주 재료들이 전쟁을 선포한다.

마치 인간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는 듯 안간힘을 쓰는 동물(닭)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상황에 적응하여 순종하는 듯한(생선),(소) 동물이 놓여있다.

인간 또한 자신의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존재한다.

【작품10】 <공상, 91 x 116cm, 장지에 채색, 2013>

세상의 권력 속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는 개인의 모습을 대변한 것이다.

그러하기에 개인적인 공간은 설 수 없는 공간이 되었으며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자신의 방은 어디에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는 불안한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 V. 결 론

우리는 각자 속한 세상 속에서의 수많은 경험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간다.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배우고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요즘 현대인들은 자신의 행복과 목적의식 없이 돈과 권력에 얽매여 살아간다. 인간은 그 누구와도 환원 될 수 없는 고유한 존재이기에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인간 존엄성을 상실하며 물질을 우선시함으로써 인해 나타나는 허무주의적인 사회이다.

본 논고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가’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한 인간 실존의 근본적인 질문과 허무한 삶의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인은 인간 소외, 인간고독의 물질만능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애환에 관심을 두어 연구 하였으며, 현대 사회가 점점 피폐해지는 원인으로서는, 유아·아동기시절 가족 구성원들의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개인의 몸속에 체화되며 한 개인의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논하였다.

니체는 허무주의의 삶의 극복으로 ‘위버멘쉬’의 인간상을 논하면서 허무주의의 삶의 극복을 논했다면 본인은 ‘가족 간의 사랑’에서야 비로서 피폐해진 현대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임을 본문에서 논하였다.

우리의 몸은 수많은 경험과 의식이 내제되어 있는 복합체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으로는 실존 철학자인 메를로퐁티의 경험적 몸 철학을 도입하였다.

메를로 퐁티가 말하는 몸-주체 철학은 경험을 통하여 나 자신의 몸을 세상 속에 체화 시킨다는 것이다. 즉 이 논고에서 말하는 몸은 외형적인 몸이 아닌 삶의 경험이 축적되어 형성된 몸을 뜻한다.

또한 타자의 ‘시선’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며 보여 지기만을 중시하

는 사회적 풍토를 사르트르의 ‘시선과 타자’의 이론을 통하여 타인의 존재와 타인의 시선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본인 작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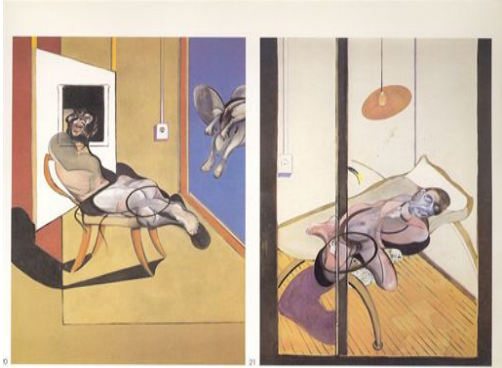
우리의 인생에 타자와의 관계는 필수 불가결한 관계이며 내가 있는 어느 곳에 서나 함께 존재한다. 항상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삶은 보여지는 나의 자아와 나의 내면의 자아의 충돌의 연속이며, 본인의 작업에서 ‘웃음’은 자신의 속내를 감추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가면에 비유 하였다.

마지막으로 미술작품에 있어서의 경험적인 몸, 실존에 입각하여 작업을 하였던 프란시스 베이컨, 자코메티, 이응노 작가의 작업을 연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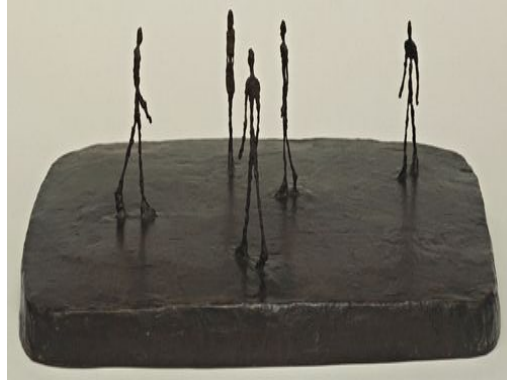
자신의 행복의 가치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척도는 달라진다.

본인 삶에서의 행복의 기준을 ‘본인 자아의 내면 성찰과 반성’, ‘이웃, 가족가의 사랑’에 두며 인간실존,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계속 연구하며 표현할 것이다.

## 참고 도판



【도판1】 <프랜시스 베이컨, 앉아 있는 인물 1974: 잠자고 있는 인물>,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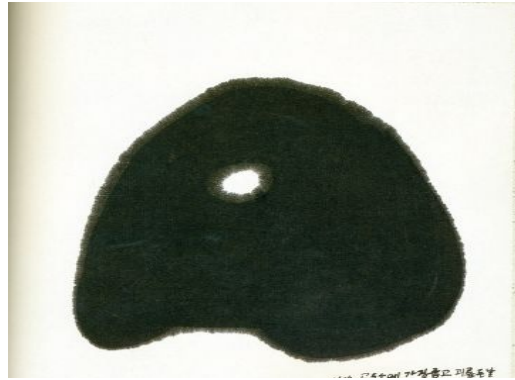
【도판2】 <자코메티, City Square>, 1948



【도판3】 자코메티, <Walking Man>, 1948



【도판4】 자코메티, <The Glade>,1950



【도판5】 이응노, <자화상> 종이에 드로잉, 1968



【도판6】 이응노, <대전풍경>, 종이에 드로잉, 1968

## 참고 문헌

### 단행본

- 강미라, 「몸주체 권력」, 이학사, 2011
- 메를로퐁티 지음. 류의근 옮김,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2002
- 박정자, 「시선은 권력이다」, 기파랑, 2008
- 박찬국, 「인간과 행복에 대한 철학적 성찰 - 실존철학의 재조명을 통하여-」, 집문당, 2010
- 송관재.김범준, 「인간심리의 이해」, 2013
- 요세 마리아편, 조광석, 이돈수 옮김 「20세기 미술의 발견-베이컨」 예경, 1980
- 홍덕선 박규현 지음, 「몸과 문화」,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 학술지 논문

- 김광희. “알베르토 자코메티 조각과 회화의 시각적 특성”. 한국기초 조형학회, <한국 기초 조형학 연구>, 11권5회, 2010
- 유정아.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조각에 관한 연구”<한국미술교육학회>, 「미술교육논총 제3권」, 1994

### 학위 논문

- 고명옥, 「고암 이응노의 작품연구: 드로잉의 양식변화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0
- 김용진, 「알코올 중독가정 성인자녀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9.
- 김혜진, 「댄스시어터 몸구현: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학과 연극학전공 예술 전문사, 2007
- 오수영, 「프란시스 베이컨 회화의 내면적 공간과 인간형상에 관한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9
- 이길호, 「니체의 인간 개념에 관한 연구: 도덕관념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도덕 윤리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1
- 정다운, 「시선으로 통하는 타자와 자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7
- 한영숙, 「프란시스 베이컨의 회화와 그의 예술세계:질 들뢰즈에 근거한 감각적 예술론의 모색」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7

## 기타

고미술, 40호 1995년 12월

위키백과사전

황인술, “메를로 폰티의 삶”, 독서신문(<http://www.readersnews.com>), 2014

# ABSTRACT

Study on Experiential Expression of Body through Gazes from Other  
Beings  
- focused on the work of the researcher-

Ham yu mi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moment we are born, our bodies experience lives until we breathe our last.

Every experience in an individual's life, no matter how big or small it is, it gets absorbed into one's body and becomes one independent human being.

The primitive communal society in which humans began their first labor was a society that felt a sense of happiness for living with others in harmony, and that was why, at that time, neither exploitation nor repression existed. However, as they produced more, this community was lost, and ranks were created which led them to a society controlled by authorities.

Today, the modern society in which we are living is an age of materialism with the dignity of a human being all deprived by the development of machine and industry, and after all, those side effects have put humans into the age of man's isolation and alienation including nihilism.

The researcher of this thesis has ways felt both sorry and happy for

people in this modern society who are surrounded by such social climates mentioned on the above, and these people have drawn the researcher's attention all the time. These questions about what the true happiness is and where we can actually find it were what convinced the researcher of beginning to work on this piece.

In the modern society, you are placed into a competition against others, and we live as comparing ourselves with other beings. How we look at each other created a society of lookism, and in the end, this society came to focus only on how one thinks about other's looks as one loses the identity.

Your not being able to feel how much happy you are has been absorbed into your body because of this climate in the modern society to make you compete against others, and it eventually makes you lose your original purity as a human being.

This thesis aims to discuss what the true happiness is to those people who are living an empty life as mentally feeling hollow about their lives full of all those competitions in the society. The thesis uses a place called 'house' and love of a family as well to study this true happiness of people in the modern society.

'House' is a little but the very first society that humans face with in their lives.

House is a place of serial meetings with other people, and it is considered a place both completely private and convenient. It is a place in which you can get hurt or damaged. As talking about how social issues, such as depression, divorce and others, could be initiated by family affairs, the researcher looks at the modern society through this

private space, house.

Proposing the theory by Merleau-Ponty who has argued that one gets one's body absorbed into the world through one's personal experiences, the researcher discussed how what we experience daily with families in the 'house' as an infant and a little child would affect the society.

Lastly, the researcher looks into artists who have described experiential expressions of bodies in their works and then, investigates images of human beings that these artists created based upon what they had experienced in their lives and social turbulences during their times. By doing so, the researcher study if the researcher's work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what these artists came up with.